

〈書 評〉

Erik Wolf, *Rechtsphilosophische Studien* (1972)
Rechtstheologische Studien (1972)
Studien zur Geschichte des Rechtsdenkens (1982)

崔 鍾 庫 評*

위의 세 책은 독일의 법학자 에릭 볼프(Erik Wolf, 1902~1976)의 논문집이다. 1972년 5월 13일 볼프의 70세 탄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의 제자 겸 후임자인 알렉산더 홀러바흐(Alexander Hollerbach)교수에 의하여 편집 계획하여 비토리오 클로스터만출판사(Vittorio Klostermann)에서 출판한 것인데, 제 1, 제 2 권이 1972년에 나온 이후 4년이 지난 1976년에 볼프교수가 서거하여 후보논문집격으로 제 3 권을 또한 출판하였다. 그 제목들이 제 1 권은 「法哲學研究」(*Rechtsphilosophische Studien*, 328면), 제 2 권은 「法神學研究」(*Rechtstheologische Studien*, 352면), 제 3 권은 「法思想史研究」(*Studien zur Geschichte des Rechtsdenkens*, 276면)이라 붙여져, 볼프의 학문적 관심을 적절히 표현해주는 것 같다. 볼프는 법철학은 법신학에 의하여 “기초되고 성숙된다”(gründet und mündet)고 누누히 강조하였고, 또 법철학이나 법신학이나 법사상사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법사상사도 “체계적으로” 관련있는 견해들의 兵器庫(Arsenal systematisch relevanter Einsichten)로서 법의 본질에 제시되고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홀러바흐가 그 편집취지의 서문에서 밝히듯이 이 3권으로 따로따로 이름을 붙여 논문들을 구분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은 볼프를 읽고, 이해하려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알면 되는 사항이고, 볼프의 수많은 논문들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나타내어 붙이는 이름으로 잘 붙인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세책에 볼프의 논문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가 단행본으로 출판한 많은 저서들에 실린 글들이 제외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잡지나 신문, 강연 원고등 가운데서도 편집자가 골라서 실은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집은 全集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選集(ausgewählte Schriften)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중에는 6편의 활자화되지 않은 원고들이 처음 공개되는 것도 있다.

I

내용에 관하여 논하기 전에 잠시 볼프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볼프라 하면 이제 우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리나라에도 법학도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이름같이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法哲學」(*Rechtsphilosophie*)의 편자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었다는 점과 외람되지만 評者가 수회에 걸쳐 소개하고 그의 글을 번역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拙稿, 에릭 볼프의 法思想, 「法史와 法思想」, 博英社, 1981). 얼마전에는 단국대학 대학신문사에서 「현대의 思想家」 시리즈를 계획하여 그 가운데 에릭 볼프를 신고, 그것을 단행본으로 출판하겠다는 계획을 표시해온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볼프에 대하여 가장 자세한 연구는 역시 슈타인뮐러(W. Steinmüller)의 「改新教 法神學」(*Evangelische Rechtstheologie*, 1968)이 압권이라 할 것이고, 하이네만(Walter Heinemann)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학위논문 「法思想에 대한 하이데거철학의 의미」(*Die Relevanz der Philosophie Martin Heideggers für des Rechtsdenken*, 1970)이 큰 참고가 된다. 그리고 1968년에 볼프의 65세 생신기념으로 가까운 동료와 제자들이 모여 볼프의 법사상을 토론한 것을 책으로 꾸민 「질 의와 응답」(*Quaestiones et Responsa*, 1968)이 좋은 자료가 된다. 評者는 한 때 이 주변에 관하여 흥미를 느끼고 볼프교수에게 직접 지도를 받은 바 있었는데, 1976년에 급기야 프라이부르크 현지에서 교수의 서거를 당하고 말았다(자세히는 拙稿, 에릭 볼프교수의 인상과 추억, 「現代法學의 理解」, 서울대 출판부, 1984, 61~69면). 생전에 당신의 책 「法哲學研究」와 「法神學研究」를 나에게 선사해주신 것을 소중히 갖고 공부를 하였는데, 이번에 제 3권이 홀러바흐교수에 의해 편집출판되어 보내왔다. 제 3권에는 뮐뤼에 홀러바흐가 볼프 1주기 추모회에서 행한 「볼프의 생애와 작품」(*Zu Leben und Werk Erik Wolfs*)이란 추모강연(*Gedenkrede*)가 붙어있는데, 감사하게도 볼프에 대한 「외국에서의 反響」(*die Resonanz im Ausland*)의 예로 評者의 이름과 논문 「에릭 볼프의 생애와 사상」(張庚鶴博士回甲記念論文集 「近代法思想의 展開」, 1977 수록)이 언급되어 있어 감사와 학문의 위대함을 실감하였다.

II

제 책을 한꺼번에 서평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만, 역시 내용적으로 충분히 논평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 한권씩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 1권 「法哲學研究」

본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I. 법철학의 기본문제들(*Zu den Grundfragen*), II. 법사상의 역사(*Zur Geschichte des Rechtsdenkens*)로 구성되어 있다.

I 파트에는 다음의 7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1. 야콥 부르크하르트에 있어서 학문의 교육적 이념(*Die pädagogische Idee der Wissenschaft bei Jacob Burckhardt*, 1928)
2. 막스 베버의 윤리적 비판주의와 形而上學의 문제(*Max Webers ethischer Kritizismus*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1930)

3. 법과 세계(Recht und Welt, 1931)
4. 법학(Rechtswissenschaft, 1961)
5. 법철학(Rechtsphilosophie, 1961)
6. 인간과 법(Mensch und Recht, 1955)
7. 일반적 법명제의 성격(Die Natur der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 1962)

비교적 초기의 논문들이고, 辭典에 실은 콤팩트한 서술방법으로 법학과 법철학의 지평과 근본문제를 알게 하는 글들이라고 하겠다.

II 파아트에는 다음과 같은 10편의 논문들이 실려있다.

1. 법률가의 역사적 위대성에 관하여(Über die geschichtliche Größe der Juristen, 1926)
2. 역사적 법철학의 문제성과 필연성(Fragwürdigkeit und Notwendigkeit geschichtlicher Rechtsphilosophie, 1968)
3. 솔론에 있어서 衡平과 正義(Maß und Gerechtigkeit bei Solon, 1953)
4. 울리히 짜지우스(Ulrich Zasius, Standbild oder Vorbild?, 1963)
5. 토마스 모어에 있어서 사회적 유토피아와 정치적 實在(Soziale Utopie und politische Realität bei Thomas Morus, 1969)
6. 몽테뉴에 있어서 법현실과 司法批評(Rechtswirklichkeit und Justizkritik bei Montaigne, 1967)
7. 법철학자로서의 라이프니츠(Leibniz als Rechtsphilosoph, 1966)
8. 사비니의 模本은 어디에 있나?(Friedrich Carl von Savigny-worin noch Vorbild, 1961)
9. 라트브루흐 법철학의 단절인가 발전인가?(Umbruch oder Entwicklung in Gustav Radbruchs Rechtsphilosophie? 1959)
10. 스스로 법적으로 생각하기(Sich ins Rechte Denken, 1968)

여기에 실린 논문들에서 보드라도 볼프의 법철학은 역사를 중요시하고, 그중에도 人物史, 法思想家史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항상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눈을 갖고, 지나간 先人들의 文集을 읽고 법과 관련되는 면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감아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에릭 볼프 문헌목록」(Schriftenverzeichnis Erik Wolf)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1962년 볼프 60세기념 논문집인 「實存과 秩序」(*Existenz und Ordnung*)에 빠진 것과 그 이후의 문헌을 보충하는 문헌목록이다.

제 2 권 「法神學研究」

본서는 크게 4파아트로 나누어져 있다.

I 파아트인 「교회와 법의 문제의 역사」(Zur Geschichte des Problems von Kirche und

Recht)에는 다음의 4편의 논문이 실렸다.

1. 칼빈에게 있어서 神學과 사회질서(Theologie und Sozialordnung bei Calvin, 1951)
2. 츠빙글리의 社會神學(Die Sozialtheologie Zwinglis, 1955)
3. 독일 개신교회 基本法의 섭렵에 관하여(Zur Entstehung der Grund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1955)
4. 교회법의 발전과 위기(Entwicklung und Krisen des Kirchenrechts, 1961)

Ⅱ 파아트의 「개신교 法神學」(Evangelische Rechtstheologie)의 부분에는 다음의 5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1. 법질서를 위한 성서의 권위(Zur Frage nach der Autorität der Bibel für die Rechtsordnung, 1949)
2. 인간적 법질서(Die menschliche Rechtsordnung, 1950)
3. 법과 사랑의 법신학적 변증법(Zur rechtstheologischen Dialektik von Recht und Liebe, 1961)
4. 법에 있어서 인격성과 연대성(Personalität und Solidarität im Recht, 1963)
5. 법인간학의 문제(Das Problem einer Rechtsanthropologie, 1966)

Ⅲ 파아트 「註釋的 試圖들」(Exegetische Versuche)의 부분에는 다음의 4편의 실려있다.

1. 법의 성서적 지시, 스가리아 7장 8절~12절의 법신학적 주석(Zur biblischen Weisung des Rechts: Rechtstheologische Exegese von Sacharja 7.8~12, 1956)
2. 約束書의 법적 지시, 출애굽기 21~23장의 법신학적 해석(Die Rechtsweisung des Bundesbuches: Zur rechtstheologischen Interpretation von 2. 21~23, 1965)
3. 인간의 질서와 神의 질서의 변증법, 마가복음 12장 13~17절의 법신학적 해석(Zur Dialektik von menschlicher und göttlicher Ordnung, Rechtstheologische Interpretation von Mk. 12,13~17, 1961)
4. 神法과 이웃法, 마태복음 20장 1~16절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법신학적 주석(Gottesresrecht und Nächstenrecht: Rechtstheologische Exegese des Gleichnisses von den Arbeitern im Weinberg, Mt. 20,1~16, 1964)

여기에 실린 글들은 그야말로 볼프의 프로테스탄트 法神學者로서, 그가 법신학의 기초를 직접 성서적 指示(biblische Weisung)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Ⅳ 파아트인 「교회법의 기초」(Zur Grundlegung des Kirchenrechts)의 편에는 다음의 7편의 논문들이 실렸다.

1. 교회와 학자(Kirche und Akademiker, 1933)
2. 교회와 법(Kirche und Recht, 1936)

3. 교회의 법적 재형성을 위하여(Zur rechtlichen Neugestaltung der Kirche, 1936)
4. 독일 개신교회 기본법의 문제와 지도이념(Das Problem und die Leitgedanken für eine Grundordnun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1948)
5. 교회의 법적 형성(Zur Rechtsgestalt der Kirche, 1952)
6. 神法(Ius divinum, 1966)
7. 교회일치의 새로운 길(Neue Wege zur Einheit der Kirche, 1969)

여기에는 볼프가 교회법학자로서 강단에서, 교회적 실무에서 참여하고 구성한 사상들을 정리하여 나타내어주고 있다. 특히 그가 독일 에반겔리케 교회 기본법(Grundordnung der EKD)의 제정에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에큐메니컬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생생한 글들이라고 느껴진다.

제 3 권 「法思想史研究」

본서는 1977년 10월 13일에 볼프가 서거하고 난 5년 후인 1982년에 나왔는데, 1982년 5월 13일은 볼프가 살아있다면 80세가 되는 날이다. 볼프의 遺稿는 미망인 올가 볼프(Olga Wolf) 여사와 홀러바흐교수의 힘의에 의하여 프라이부르크大學 도서관 手本室에 보관시켰는데, 그 가운데서 출판을 목적으로 한 유고들을 이 책에 실은 것이다.

본서에는 모두 9편의 논문이 실렸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철학에 있어서 플라톤의 法思想의 유지와 변형(Beharrung und Umwandlung des platonischen Rechtsgedankens in der Sozialphilosophie von Aristoteles, 미공개)
2. 후기 그리스의 人權과 세계국가(Spätgriechisches Menschenrecht und Weltbürgertum, 미공개)
3. 神관계에 있어 體系性.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질서와 법의 질서(Verfaßtheit in Gottesverhältnis. Zur Augustins Gedanken des ordo rerum in ordo amoris, 미공개)
4. 에라스무스의 그리스도철학에서의 법과 종교(Recht und Religion in der philosophia christiana des Erasmus von Rotterdam, 미공개)
5. 마키아벨리에 있어서 역사적 인간의 強制的 苦難의 秩序力(Machiavellis Lehre von der Ordnungskraft der nötigen Not des geschichtlichen Menschen, 미공개)
6. 야콥 부르크할트와 빈트샤이트(Jacob Busckbarchts Verhältnis zu Bernhard Winscheid, 미공개)
7. 노오턴에 있어서 시대비판과 사회진단(Zeitkritik und Sozialdiagnose bei Charles Eliot Norton, 1977)
8. 프리츠 프링스하임에 대한 추도사(Gedenkwort für Fritz Pringsheim, 미발표)
9. 법사조에 있어서 직확한 언어(Verpflichtende Sprache in Rechtsdenken, 1972)

여기에 실린 논문들 역시 대부분 볼프가 법사상의 연구에 있어서 人物 중심으로, 다소 逸話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면모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지의 제 2 편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형이 수록되어 있다.

첫째로 「에릭 볼프의 문헌목록」으로, 이것은 위에 언급한 앞서의 두곳에서의 문헌목록을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로, 「에릭 볼프의 遺品에 관하여」(Zur Erik Wolfs Nachlaß)라는 해설인데, 이것은 후일의 볼프연구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안내이다. 이에 따르면 그의 유품은 프라이부르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편지(Briefe), 문서(Akten), 원고(Manuskripten)로 이루어져 있다. 편지는 대부분 에릭 볼프가 받은 편지들인데, 그 가운데는 에어하르트(Arnold Ehrhardt), 그라프 주 도오나(Alexander Graf zu Dohna), 그뤼너트(Max Grünhut), 훗설(Gerhart Husserl), 예루살렘(Franz Wilhelm Jerusalem), 키쉬(Guido Kisch), 메츠거(Edmund Mezger), 프링스하임(Fritz Pringsheim), 에버하르트 슈미트(Eberhard Schmidt), 스멘트(Rudolf Smend) 등의 동료 법학자들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고, 카알 바르트(Karl Barth), 콘스탄틴 폰 디예제(Constantin von Dietze), 그리제바흐(Eberhard Griesebach), 군돌프(Friedrich Gundolf),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훗설(Edmund Husserl), 야스퍼스(Karl Jaspers), 잉거(Ernst und Friedrich-Georg Jünger), 니이뮐러(Martin Niemöller) 등의 일반 학자 및 교회인사들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 특기할만한 것은 여기에는 에릭 볼프에게 보낸 라드브루흐의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는 볼프가 편집한 「라드브루흐 편지」(Briefe, 1968)에 실려있다. 그리고 이 유품 가운데는 볼프가 라드브루흐에게 보낸 20통의 편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 여기에는 볼프와 그의 제자 할(Karl Alfred Hall) 교수와의 교환한 편지 전체가 소장되어 있다. 이 교신은 240통의 편지에 이른다. 앞으로 계속하여 볼프교수가 다른 사람에게 쓴 편지들도 수집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서부분은 대체로 볼프가 1945년 이후에 교회활동에 관계할 때 만든 회람, 小論, 노트, 메모등인데, 이것도 아직 부분적으로만 정리되어 있다 한다.

그리고 원고는 가장 많기로는 볼프의 「법철학 및 국가철학사」(Geschichte der Rechts- und Staatsphilosophie) 강의원고들이고, 그외에 死刑문제에 관한 원고, 성서해석에 관한 원고, 프라이부르크대학의 학생회에서 행한 강연원고들이다.

셋째로 「에릭 볼프에 의해 지도된 박사학위논문과 교수자격논문부록」이 붙어있는데, 여기에는 1930년 로스톡대학에서의 할(K.A. Hall)에서부터 시작하여 1966년의 야스트로(Hans-Jürgen Jastrow)에 이르기까지 68명의 박사학위 취득자와 그 논문제목, 그리고 세 사람의 교수자격 논문의 취득자가 실려있다. 참고로 볼프에게서 교수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면, 할(A.K. Hall)이 1933년에, 마이호퍼(W. Maihofer)가 1954년에, 뷔르덴베르거(T. Würtenberger)가 1940년에 교수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눈에 띄는 인사로는 뷔르덴베르거가 1933년, 홀러바흐가 1957년, 홈메스(U. Hommes)가 1962년, 金智洙가 1966년, 슈나이더(Hans-Peter Schneider)가 1967년, 중국인 수준송(蘇俊雄)이 1966년으로 나타나 있다.

이 책의 부록으로 붙은 홀러바흐교수의 논문 「에릭 볼프의 생애와 작품」은 1978년 6월 10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볼프교수 1주기 추모회에서 행한 추모연설인데, 그 량에 있어서나 구성에 있어 스승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심도깊은 분석이라고 하겠다. 評者도 그날 추모식에 참석하여 감개무량하였는데, 다시 그것을 활자로 읽게되니 더욱 감회가 깊다. 인간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학문과 사상은 저수지처럼 고여지는 것인가 싶다.